

제47차 한국 에스페란토 대회

강현구 / LKK 위원장

한국에스페란토협회는 10월 3일(토)~4일(일) 이틀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7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를 개최하였다. 6개국에서 총 141명이 참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한국 120명(어린이·청소년 32명 포함), 중국 14명, 헝가리 3명, 일본 2명, 베트남 1명, 이란 1명이 참가하였다. 풍부한 프로그램과 충분한 먹거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멀게 느껴지는 숙소 때문에 참석자들이 많이 불편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2017년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를 대비하여 우리 회원들이 대회장 및 주변의 지리를 미리 익혀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 숙소 선택이었다. 47차 한국대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개회식 (사회 박 강)

개회식 전 행사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합창과 박소산(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 회원의 학춤 발표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박강 청년회장의 사회로 이영구 협회장이 제47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단상의 인사들을 소개하였다.

이영구 회장은 대회사에서 “제102차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서울 유치로 인해 협회가 서울관광마케팅으로부터 주최자분과 최우수회원으로 선정되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동방의 등불을 밝히자”라고 제안했고, 강현구 LKK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102차 세계대회를 힘들여 유치했으니 우리는 그 대회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어 각계의 축하인사가 이어졌다. 이중기 세계협회 임원이 대독한 Mark Fettes 세계에스페란토협회 회장은 “한국은 기술과 문화적 창의력이 풍부한 나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대회의 좋은 전통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100차 세계대회 개최식이 인터넷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나는 Lillo(프랑스)과 Nitro(슬로바키아)의 준비위원들과 함께 경험들을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Nan Youli 북경에스페란토협회장이 축하인사를 하고 이어 KAEM(아시아에스페란토운동위원회) 회장 Wang Ruixiang의 인사말도 대독하였다. 박용승 부회장이 ILEI(세계에스페란토교육자연맹) 회장 Mireile GROSJEAN의 인사말을, Yamasita Tosihiko(Belmont) 씨가 JEI(일본에스페란토협회) 회장 SUZUKI Keiichiro의 인사말을 각각 대독하였다. 그의 Eniko Gengo(헝가리), Duong Tu Kiu(베트남), Saed ABBASI(이란)가 각각 국가대표로 축하 인사를 했다.



개회식 전 어린이들의 축하공연



제47차 한국대회 개회식

시상 및 감사패 증정

- 제15회 해평(이재현) 민족상: 이영구 회장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공로로 이형진 우봉해평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부터 수상)
- 제12회 이종영 상: 한숙희 사무국장 (2014년에 가장 많은 신입회원을 협회에 가입시킨 공로)
- 감사장: 정현주 이사, Kawanishi Tetsurou(일본), MÁRKUS Gábor(헝가리) (한국에스페란토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로)
- 공로패: 전경덕, 박강문 지도위원 (지난 50년 동안 한국에스페란토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이어 “La Espero” 제창에 이어 개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친교의 밤(사회 이현숙)

개회식에 이어 친교의 밤이 이어졌다. 원로회원 및 신입회원 소개(이남행)에서 에스페란토 입문 50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 자르기 행사가 있었으나 박강문 지도위원의 불참으로 전경덕 지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친교의 밤에서

에 진행되었다. 그동안 한국에스페란토운동에 기여해 주시며 대하여 감사드렸다. 이에 전경덕 지도위원이 에스페란토 입문 50주년 기념타올 200장(1,000,000원)을 전체 참석자들에게 선물하였다. 그리고 신입회원들의 이름을 서명하며 박수로 맞이해 주었다.

경매(허 성)에서는 총 13점이 판매되어 26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올해의 출판물에서는 ‘에스페란토와 조국을 사랑한 우양 한무협’(김우선 · 양옥남 · 최대석 편집)과 장정렬 번역서 ‘산촌’과 ‘세계민족시집’이 소개되었다. 또한 에스페란토 포크댄스 동호회 회원들의 포크댄스 시범과 이선희 전주지부장의 마술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오 (사회 허성)

“2017년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를 대비한 에스페란토교육”을 주제로 박용승 부회장(교육)이 발표하였다. UK 2017을 위하여 한국에스페란토협회(KEA)에서 설정한 300명 일꾼 목표에 따라 200명의 중급자 양성을 위하여, 1500단어와 문형연습 그리고 읽기습관을 포함한 초급이후 독립중급까지의 6개월 과정의 표준커리큘럼의 필요를 제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가동하기 위하여 KEA 지도자들의 분업과 협업을 위한 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 신은숙 에스페란토사랑방 대표는 세계대회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일할 최소한의 강력한 일꾼 50인을 키워내는 “50인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김형근 편집위원은 “2017년 세계대회를 대비한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6 monata projekto ĝis la monato 2016”를 발표하였다.



원로회원 및 신입회원 소개

분과모임

- 청년 에스페란토 운동(박 강): 10명 참석. 청년 활동가의 부족함을 호소하며, “제34차 KS1)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였다.
- 에스페란토경영인 협동조합(김용진): 11명 참석. Weibing(중국) 씨가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였다.
- 에스페란토 발음 클리닉(허성): 8명 참석. 발음교정 학습으로서 참석자들이 다음에 다시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 포크댄스(우병인): 20여명 참석. 5가지의 민속춤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 기독교 에스페란토 운동(마영태): 8명 참석(외국인 ZHENG Bocheng(중국), Saed ABBASI(이란), MÁRKUS Gábor(헝가리)). 예배 후 종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원불교 에스페란토 운동(김상익): 8명 참석. 요가로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후, 원불교경전을 읽고, 경전관련 대화를 나눈 후, 대회 후 곧 개최될 제11차 국제선방(10.8~11)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세계무민족성기구(정현수): 11명 참석. 2017년 SAT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였으나,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세계에스페란토대회 100배 즐기기(서길수): 20여명 참석.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이용하여 2016년 슬로바키아 니트라에서 개최될 제101차 세계대회에 참석하는 통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토론하였다.
- 에스페란토와 영어의 어근비교(신현규): 외국인 포함 9명 참석. 학술적인 대화로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발음까지 비교하는 좋은 기회였다.
- ‘Teo kaj Amo’(Zhang Ping, 중국): 약 25명 참석. 중국 차에 대한 영화 상영과 함께 중국차를 함께 마시면서 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외국인 참가자와의 대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외국인과의 대화시간은 국가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중국 반은 북경에스페란토협회 Nan Youli 회장, 헝가리 반은 MÁRKUS Gábor 박사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1) 동아시아 청년 세미나, 12월 26~29일(화), 부산



상: 에스페란토 발음 클리닉 (허성)

하: 외국인 참가자와의 대화 (MÁRKUS Gábor)

어린이, 청소년 강좌(이정희)

어린이, 청소년 19명과 교사 11명이 참석하여 외국인과의 인사하기, 노래 배우기, 가면 꾸미기, 청년들과의 공놀이, 개막식 전 공연을 준비 하였다.

초급강좌(김선옥)

초보자 6명 참석. 대회기간 중 양일에 걸쳐 6시간 동안 주로 상관사를 중심으로 기초문법을 공부했다.

폐회식(사회 임한우)

허성 프로그램 담당의 대회보고에 이어 각 분과모임 담당이 보고를 하였다. 2016년 제48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는 2017년 서울 UK 준비를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영구 회장의 폐회선언과 Tagiĝo 제창으로 1박 2일간의 제47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를 마감하였다.

후원금(담당 정현주)

제47차 한국대회를 위해, 참가자들의 참가비 외에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39명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총 6,100,000원을 후원하였다. 특히 헝가리의 MÁRKUS Gábor 박사는 20만원을 후원하였다. (회비 및 후원금 내역은 20쪽 이사회 보고사항 참조)

맷는말

성공적인 한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LKK 위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 늘 그렇듯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가장 부각된 문제는 대회장에서 숙식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이었고, 개회식이 늦어져 다른 행사에도 차질이 있었다는 점이다. 숙소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2년 후에 개최될 세계대회를 위한 숙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자는 의도된 계획이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엄수해야 할 부분이며, 또한 참가자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서관매를 중지하는 등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소 짧게 느껴지는 1박 2일의 대회를 치루며 대회기간을 2박 3일로 연장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봤다. 제47차 한국대회를 위하여 여러 면에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47차 한국대회 준비위원

– Korea Esperanto-Asocio okazigis la 47-an Korean Kongreson de Esperanto en Hanguk Universitato de Fremdaj Studoj en Seulo de la 3a ĝis la 4a de okt. 2015, kun la temo “Kiel ni preparu la vojon al la 102a Universala Kongreso de Esperanto?” Ĉeestis 141 esperantistoj el 6 landoj (120 koreoj, 14 ĉinoj, 3 hungaroj, 2 japanoj, 1 irano, 1 vjetnamo). Sub la prezido de PARK Kang (prez. de Korea Esperanto-Junularo) komenciĝis malferma ceremonio. Prof. LEE Young-Koo (prez. de KEA) salutparolis kaj proponis, ke ni ankoraŭfoje lumigu lanternon orientan. Kaj sekvis salutparolo de KANG Hongu (prez. de LKK) kaj gratulvortoj de surpodianoj kaj alilandanoj.

5 personoj estas premiitaj: prof. LEE Young-Koo ricevis la 15an ‘Hajpin Premio’-n pro la sukcesa gastigo de la 102a UK en Seulo; s-ino HAN Sugheui (sekretario de KEA) la 12an ‘Premio

LEE Chong-Yeong’-n, ĉar ŝi plej multe varbis membrojn la KEA lastjare; JOUNG Hyeon-ju (estrarano de KEA), KAWANISHI Tetsuro (Japanio), kaj MÁRKUS Gábor (Hungario) respektive dank-esprimilon pro kontribuo al Korea E-movado. Kaj s-roj JEON Gyeongdeok kaj PARK Gangmun estis gratulitaj de partoprenantoj pro la aktiva E-movado pli ol 50 jarojn per torto.

Post la malfermo sekvis memorfoto, kaj ĉi-jare eldonitaj libroj estis prezentitaj: “HAN Moo-hyup amanta Esperanton kaj patrujon” kaj du tradukaĵoj, ‘산촌(Montara vilaĝo)’ kaj ‘세계민족시집(Elpafu la sagon)’, kaj partoprenantoj amuziĝis de popoldanco de FDKE(Folkloro Danco-Klubo de Esperantistoj) kaj magiaĵo de s-ro LEE Sun-hee. En aŭkcio 13 aĵoj estis venditaj por 260,000₩.

3 simpozioj estis prezentitaj laŭ la prezido de s-ro HO Song: PARK Yongsung (vicprez. de KEA) pri ‘Sinpretigado al UK 2017’, SHIN Eunsook (prez. de E-Saranbang) pri ‘Kvindek-persona projekto’, kaj KIM Hionggun (ĉefredaktoro) pri ‘Diskuto pri hejmpaĝo preparante la UK-2017 en Seulo’.

10 Fakaj Kunsidoj estis aranĝitaj: Junulara E-movado (PARK Kang), IKEF²–Korea (GIM Yongin), Kliniko de Esperanta Prononcado (HO Song), Folkloro Danco-Klubo de Esperantistoj (WOO Byongin), SAT–Korea (JEONG Hyonsu), Ŭonbulismo (KIM Sang ik), Kristanismo (MA Youngtae), Libera diskuto pri “Kiel la plej efike kongresi UK-on?” (SO Gilsu), Komparado de vortoradikoj de Esperanto kaj angla lingvo (SHIN Hyeonkyu), kaj Teo kaj Amo (Zhang Ping, Ĉinio). Krome pretaj estis Kun fremdlandanoj de Nan Youli(Ĉinio) kaj MÁRKUS Gábor(Hungario), Kurso por infanoj kaj junuloj de LEE Junghee (Hela) kaj Kurso por komencantoj de KIM Sunwook. Ĉar ne nur LKK-anoj ankaŭ la membroj de KEA kunlabore klopodis okazigi ĉi-jaran Korean Kongreson, mi elkore dankas ilin ĉiujn. ☸

2) Internacia Komerca kaj Ekonomia Fakgrupo

La 11a Internacia Esperanto–Renkontiĝo de Meditado

HONG Sungcho (Avo)

En *Bongdo* Junulara Trejnejo ĉe la monto Bukhan–san en Seulo okazis la 11a Internacia Esperanto–Renkontiĝo de Meditado (IERM) de la 8a ĝis la 11a de okt., 2015. Ĝin organizis la Esperantista Asocio de Ŭonbulismo (EAŬ) sub la aŭspicioj de la Internacia Fako de Ŭonbulismo, koredevena religio. Ĉeestis 32 esperantistoj el Hungario, Japanio, Ĉinio, Nederlando kaj Koreio. Ĉi–jare partoprenis konataj aktivuloj: MĀRKUS Gábor kaj Eniko Zengo Sereghy el Hungario, Margreet Peschier el Nederlando, HUGIMOTO Hideko el Japanio kaj ZHANG Wei el Ĉinio.

Al la evento sian mesaĝon sendis la estrino de la Internacia Fako de Ŭonbulismo kaj gratulis la dekunujariĝon de IERM, aparte menciante ke la internacia meditado, kiun organizis la Esperantista Asocio de Ŭonbulismo kadre de la 100a Universala Kongreso de Esperanto en la franca urbo Lillo, altiris multajn atentojn de la kongresanoj. Mi estas certa, ke Esperanto ja rolas gravan rolon por diskonigi la instruon de Ŭonbulismo al diversaj partoj de la mondo. Mi dankas ŭonbulanajn esperantistojn pro ilia senĉesa agado kaj ĉiujn esperantistojn pro ilia sincera kunlaboro. Ankaŭ José Antonio Vergara, UEA–estrarano pri faka

agado, sendis sian mesaĝon, ke li vizitis la retejon de la *Bongdo* Junulara Trejnejo de Ŭonbulismo, kio permesis al li ricevi tre bonan impreson kaj pri la konstruaĵo kiu komforte gastigos vin, kaj pri ĝia bela natura ĉirkaŭaĵo. Surbaze de tio kaj de la plena fido, kiun inspiras ĉe li la karaj EAŬ–gvidantoj, kiujn li persone konas, li certas ke la nuna sperto alportos ion tre valoran al viaj unuopaj vivoj. La amika, esperantista etoso, kiun vi kolektive konstruos dum la venontaj tagoj, sendube estos ekzemplo de strebado al tio, kion instruis Sotesano (fondinto de Ŭonbulismo), nome disvolvi la spiriton.

Oni faris ĉiufrumatene fizikan ekzercadon kaj sidmediton kaj ĉiuvespere 108–fojan riverencon kun pento, preĝo, danko kaj bondeziro. Dum la



La 11a IERM de la 8a ĝis la 11a de okt. (fotita de JEON Dae–bong)

renkontiĝo prelegis MÁRKUS Gábor (La birdvidita pano), OH Soonmo (Mensostudo), LEE Jungkee (Manko de pura akvo en Afriko), Huĝimoto Hideko (Te-ceremonio kun meditado), CHO Myungja (Herzberg kaj aliaj eŭropaj urboj), JO Moonzoo (Korea tradicia maskodanco), JUNG Bongwon (Danĝona meditado) kaj HONG Sungcho (Meditado en la ĉiutaga vivo). Inter la prelegoj okazis elekteblaj liberaj rondoj, en kiuj malgrandnombraj homoj pli proksime kaj profunde diskutis pri siaj interestemoj.

La korean tradician maskodancon prezentis JO Moonzoo kaj la ĉeestantoj provis danci laŭ ŝia gvido.

Oni ne nur meditis kaj prelegis, sed ankaŭ ekskursis al la montara pado Uirjong, kiu troviĝas en la nacia parko Bukhansan. 'Ui' signifas bovorelon. La nomo de la pado devenas de tio, ke ĝi preteriras la rokon, kiu similas al bovorelo. Ĝi ligas Seulon kun la urbo Jangĝu kaj estas longa je 6.8 kilometroj kaj larĝa je 6 metroj. Ĝi estas nepavimita. Estis malpermesite al civiluloj eniri en la padon dum la pasintaj kvardek jaroj, ĉar ĝia ĉirkaŭaĵo estas okupata de la armeo. Do la regiono bone konservas naturan ekologian sistemon. Dank' al tio, ni sufiĉe ĝuis freŝan aeron kaj bone konservitan kvietan medion. Post la ekskurso oni sate gustumis koreajn manĝaĵojn en la vespera bankedo.

La ĉi-jara renkontiĝejo situis en belpejzaĝa montaro kaj la ĉeestantoj ĝuis tre amikan kaj spiritan etoson por kvar tagoj. Estas notinde, ke post la renkontiĝo, d-ro MÁRKUS planis du semajnajn kursojn por komencantoj kaj preparantoj de 2017 UK en Seulo. Dum la renkontiĝo niajn agadojn favore raportis ŭnbulisma ĵurnalisto. Margreet Peschier el Nederlando estis intervjuita.

La 12a IERM okazos de la 5a ĝis la 8a de majo 2016 en Byunsan de la provinco Jeonbuk.



- Danĝona meditado de Chung Bongwon
- Korea tradicia maskodanco de JO Moonzoo
- Te-ceremonio kun meditado de Huĝimoto Hideko

Oni povos ĝui plenan esperantistan gastamon de Koreio. Interesiĝantoj turniĝu al OH Soonmo (soonmo1010@hanmail.net).

<Koncernaj fotoj ⇔ <http://cafe.daum.net/VerdajSteletoj>, ĉiuj fotoj estas faritaj de JEON Dae-bong>

- 제11차 국제 선방은 2015년 10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서울 우이동 봉도 청소년수련원에서 32명(외국인 4개국 6명 포함)이 참가한 가운데 8가지의 강연과 4회의 Libera Rondo, 그리고 새벽과 늦은 저녁에 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4일 내내 진행되었다. 그리고 만나질 관광으로 다 함께 우이령을 넘어 오봉산 석굴암까지 함께 걸으면서 한국의 초가를 정취를 느꼈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으로 탈춤을 배우며 함께 추었으며, 토요일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이번 선방 참가자들 중 헝가리의 MÁRKUS 박사는 연속 5회째 참석하여 강의를 해 주셨고, 일본의 Huĝimoto Hideko 여사는 일본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다도를 선보였는데, 다도는 불교에서 유래하였고 한국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으며 다도에도 선이 함께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차를 마시는 방법 중 찻잔을 감상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국에서 잡혀온 도공이 그 찻잔을 보면서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설명을 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에스페란토로만 진행된 국제 선방은 선의 체험과 에스페란토 언어로의 생활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선방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새의 눈에 보이는 빵(제1, 제2, 제3 세계의 이야기, MÁRKUS Gábor), 마음공부(오순모), 아프리카의 물 부족사태(이중기), 선과 함께하는 다도(Huĝimoto Hideko, 일본), 독일 헤르즈베르그에서의 생활과 에스페란토를 통한 유럽 여행(조명자), 한국 전통 탈춤(조문주), 단전주선(정봉원), 일상생활 속에서의 음악을 통한 무시선(홍성조).

선방이 진행되는 동안 원불교신문사에서는 기사를 보내 Margreet Peschie(네덜란드) 여사를 취재하고, 10월 16일자 원불교신문에 '에스페란토, 국제교화의 열린 기회'란 제목으로 소개했다.

선방 참가 후 Márkus 박사는 한국 에스페란티스토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무료강습을 초급, 중급, UK반으로 나누어 2주간 KEA에서 진행했다. (10.12~26)

원불교에스페란토학회에서 진행하는 제12차 국제 선방은 2016년 5월 5~8일(4일) 경관이 수려한 변산반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은 오순모 (soonmo1010@hanmail.net) 선생께 문의 바란다. ☺

● 국제선방 참가기

En la 11a Internacia E-Renkontiĝo de Meditado



Bone preparitaj interesaj prelegoj,
Emocioplenaj kantoj pri ĉiutaga meditado,
Agrabla vetero,
Relative malmultaj ĉeestantoj,

Amikeca harmonio inter la ĉeestantoj,
Saĝa instruo de Sveka(JUNG Bongwon)
Iom laciga ekskurso en la montaro,
Facile atingebla renkontiĝejo en Seulo,
Unika ebleco por eŭropanoj por konatiĝi kun la korea kulturo,
Mankas ebleco renkonti la ĉefmajstron kaj riĉan saĝan mesaĝon por gvidi nin dum la venonta jaro.

<MÁRKUS Gábor el Hungario>



1. Mi sufiĉe ĝuis Esperantuoj kun karaj ĉeestantoj en agrabla kaj feliĉa etoso. Koran dankon al Ŭonbulismo kaj organizantoj de IERM.

2. La enhavo estis tre riĉa. Do ni ĉiuhore freŝe kaj interese ĝuis la programerojn.
3. Prelegoj estis tre bonaj por altigi kapablon de Esperanto. Partoprenantoj povis rekoni diversajn aferojn.
4. Manĝaĵoj dum la Renkontiĝo estis tre bongustaj.
5. IERM donis al mi specialan kapablan sperton.

<Huĝimoto Hideko(Sunjo) el Japanio>



Mi multe ĝuis la 11an IERM-n kun ĉeestantoj, kaj havis valorajn instruojn de la prelegoj. La gajaj tagoj portis al mi novajn amikojn, kaj mi sentis de ili profundan amikecon.

<Margreet Peschier el Nederlando>



Kiel bona IERM estis por mi! Mi multe lernis Esperanton de ĝiaj gvidantoj. Do mi kore dankas ilin ĉiujn. Mi volas sinsekve partopreni en la 12a, 13a, 14a ...

<ZHANG Wei el Ĉinio>



Post longa veturado dum ĉ. 5 horoj per trajno, metroo kaj buso el la urbo Busan, mi alvenis al *Bongdo* Junulara Trejnejo de Ŭonbulismo por partoperni en IERM. La programeroj seriozaj kaj imponaj, nin jen ridegis jen plorigis. Mi multe lernis de la valoraj prelegoj kaj foje ĝuis la meditadojn laŭ gvido de Ŭonbulismanoj. *<OH Gisook(Granda) el Koreio>*



Mi estis feliĉa kun bonaj geamikoj en gaja atmosfero kun riĉaj programeroj kaj bongustaj manĝaĵoj. Do mi elkore dankas la zorgantojn de ĉi-IERM.

<KANG Hongu el Koreio>



Se ni amas, ni ekkonas.
Se ni ekkonas, ni ekvidas.
Tamen la vidiĝo ne estas sama kiel antaŭe.
(saraharman alke diko alke dikhon boindadoni
gk boinis giti gk tjonka galki aladira)

프랑스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원불교 교도들(영산님 부부와 오순모 선생 부부) 덕택에 원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황금같은 연휴였지만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제11차 국제선방에 참석하게 되었고, 기대만큼 만족스런 행사였다. 다양성과 포용... 원불교의 종교적 이념과 에스페란토 정신을 새기면서 마음속에 큰 원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해 본다.

<HA Gyeonghwa(Harna) el Koreio>



Mi unuafoje partoprenis en IERM, kaj havis kelkajn bonajn spertojn. Unue, 108-foja riverenco donis al mi mense kaj korpe bonan energion. Due, matena meditado helpis min komenci kvietan kaj pacan

tagon. Trie, ĉiuj prelegoj donis al mi bonajn instruojn. Kvare, en 'Libera Rondo' mi havis ŝancon paroli pri la vivmaniero kun partoprenantoj. Estis bona programo.

En bela vetero, mi multe ĝuis enarbaran naturon ĉirkaŭ IERM-ejo kaj babiladon kun esperantistoj en Esperanto. Mi esperas, ke en venontaj IERM-j pli multaj partoprenos, precipe alilandaj samideanoj.

<Li Hyonsuk(Jesa)el Koreio>



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들이 원불교 교도도 아니면서 이 선방에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 그 속에 내가 있다. 멋모르고 그냥 따라왔다. 난 초보였다. 인생 초보인 김선옥의 강의는 초보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사람들과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춤을 추며 나 스스로를 챙기고 다졌다. 나는 지금의 행복한 나를 위해 산다. 아마 국제선방에 모인 사람들도 그러하리라 본다.

<조문주(Hejna)>



La zorgantoj estis sinceraj kaj sindoneme afablaj. IERM estis bonega ŝanco ĝui Esperanton. Plie la kotizo estis modesta, se la partoprenantoj pli bone regas nian ligvon Esperanto. La Renkontiĝo devas esti fruktoplana.

<HO Song el Koreio>



에스페란토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배운지 이제 겨우 3개월 남짓, 충분치 못한 학습 실력으로 입을 떼려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입만 뻐끔거린 것 같다. 그래도 초보자인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쉽게도 전일 참석은 못했지만,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워서 그 아쉬움이 덜하다. Ĝis revido!

<손현기(Korvo)>



IERM(10.8~11)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10~11일까지 참석하였다. 서툰 실력으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뒤 우이령 둘레길을 다녀왔다. 나무

가득한 북한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까이 보이는 도봉산의 오봉을 감상하며 에스페란티스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막걸리 모임에서는 용기를 내어 잘 되지 않는 에스페란토 신 버전으로 발표도 하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석자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외국인들의 에스페란토 대화를 열심히 들어 보려고 귀를 빼어 노력했다. 에스페란토를 활용하는 재미가 제법 느껴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전창성 (Emisto)>



Mi tre dankas ĉiujn partoprenantojn, de kiuj ĉiujare mi lernas multon kaj sentas grandan amon. Precipe mi kore dankas alilandanojn.

Abundaj prelegoj de partoprenantoj plilumigis la IERM-n, mi pensas. Do Ŝonbulismo deziras, ke ni ĉiuj kune iru al la paca mondo en Esperanto. Esperante rerenkontiĝon kun pli bonaj korpo kaj menso, denove koran dankon!

<JUNG Bongwon(Sveka) el Koreio>



Partopreninte en la 11a IERM mi kiel organizanto esprimas grandan dankemon al, d-ro MÁRKUS Gábor, kiu sinsekve kvinfoje partoprenis kaj prelegis per kortuŝitaj temoj en IERM. Ankaŭ ĉi-foje li prelegis pri la titolo 'La birdvidita pano'. Danke al la prelego, mi eksciis pri la tria mondo, en kiu oni havas malfacilan vivon, kaj meditis pri la malriĉuloj.

s-ino Huĝimoto Hideko(Sunjo), kiu prezentis japanan teceremonion per verda teo. Por tio ŝi eĉ portis pezajn ferkruĉon kaj tasojn el Japanio. Dum la ceremonio mia edzo volonte ĝoje helpis ŝin kaj ĉiuj ĝuis la bongustan teon kun dolĉa kuko.

s-ino Margreet Peschier el Nederlando, kiu sincere gvidis 'Libera Rondo'-n kaj volonte instruis Esperanton al SON Hyun-ki(Korvo). Mi pensas, ke tiu junulo revenis hejmen plena.

s-ro KIM Sun-wook(Suno), kiu gvidis bazan

kurson por komencantoj. Ili tre kontentis pri la kurso.

ĉiuj, kiuj sincere partoprenis en IERM. Povis esti, ke unu aŭ du en ĝia programo ne tiel plaĉus al ili, tamen ili volonte partoprenis en la programeroj. Do mi promesas, ke en la venonta IERM, ni organizantoj pli glate plenumos ĉiujn programerojn.

laste ankaŭ mi mem, kiu ĉiufoje ĉeestis en IERM per prelego, kaj senĉese klopodis plibonigi Esperanto-kapablon por venontfoje prezenti pli belan prelegon. Mi deziras al ĉiuj feliĉan vivon. ☺

<OH Soonmo(Brila) el Koreio>

Amikoj de Zamenhof
(1구좌 50만원, 2015년 10월 15일 현재)

- 1998년: 김영명(2) 최홍두(2) 이종영(1)
정원조(1) 박화중(1) 최영달(1)
조성호(1) 김우선(1) 양옥남(1)
박강문(1) 마영태(1) 자넨호프클럽(1)
- 2000년: 룬도이만타(1)
- 2003년: 김영옥(1) 안낙천(1, 고 안송산님 장손)
- 2004년: 김영명(2) 김해동(1) 이영구(1)
이종영(1) 외대에스페란토동문회(1)
- 2005년: 김영명(2) 이영구(2)
- 2006년: 김영명(2) 이영구(2) 한무협(2)
- 2007년: 박화중(5) 이영구(3) 김영명(2)
장충식(2) 조성호(2) 이종영(1)
- 2008년: 박화중(20) 김진호(대7, 2)
김영명(1) 김 주(1)
- 2009년: 박화중(20) 박지홍(4) 김영명(1)
김 주(1) 김현준(1)
- 2010년: 박화중(19) 김영명(1) 김 주(1)
김현준(1)
- 2011년: 박화중(24) 이재현(Hajpin Li, 2)
김영명(1) 김상익(1)
- 2012년: 박화중(19) 김영명(1)
- 2013년: 박화중(19) 김영명(1) 이영구(1)
- 2014년: 이영구(4) 박화중(2.4) 인천지부(2)
홍인숙(2, 고 홍형의님 차녀) 김영명(1.2)
강현구(1) 박강문(1) 마니또여행사(1)
서울지부(1) 정원조(1) 익 명(1)
- 2015년: 이영구(5) 박화중(2) 전경덕(1.5)
김영명(1.4) 류진숙(1) 배성애(1)
서울지부(1) 손호철(1)

● 한국 여행기 1

La vojaĝo al Koreio

Shi Linjuan (施林鹃, Ĉinio)

Por mi aŭtuno ja estas verda sezono. En oktobro lastjare, mi vojaĝis al Japanio por partopreni en la 4-a ISOA³⁾ kaj ĉi-jare en la sama monato la verda vento portis min al Seulo, Koreio por la 47-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Komprenoble estis fruktoplana sperto denove. Do, kion mi faris en Seulo kaj kia Koreio aperis en miaj okuloj? Bonvole legu mian raporton.

1. Nia turismado en Seulo

En la fino de tiu ĉi septembro, en la 28a, 12 membroj de Pekina Esperanto-Asocio atingis la Incheon-flughavenon por 6 noktoj kaj 7 tagoj en Koreio. En la flughaveno jam atendis nin Jesa(LI Hyon-suk) kaj Natura (JOUNG Hyeon-ju). Kun dolĉaj ridetoj ili akceptis nin kaj rekte akompanis nin al hotelo. Lasinte valizojn, ni tuj komencis turismadon. Ni veturis al la palaco 景福宮 (Kyeongbok-gung) per buso (ni luis la propran). Ni sekvis ĉiĉeroninon kiu parolis la ĉinan, kaj rigardis la labor-interŝanĝon de gardistoj de la palaco. Rigardinte la konstruaĵojn kiuj havas konstruan stilon tre similan al tiu de antikva Ĉinio, ni multe ĝuis la tempon. Poste, ni iris al la strato de 仁寺洞(Insa-dong)⁴⁾. Mi tute forgesis, kiujn lokojn ni vizitis antaŭ la vespermanĝo, ĉar mia memoro malboniĝas, kiam mi malsatas. Ni gustumis tre akran manĝaĵon el polpo kaj ĝia gusto estis terure pika por mi! Tio estis la unua leciono, kiun mi lernis en Koreio pri

manĝaĵoj. Pika, pika kaj ankoraŭ pika! Post vespermanĝo, ni iom promenadis kaj renkontis s-ron Kang Hongu(Kanguruo). Jesa kaj li gvidis nin rigardi ĉirkaŭaĵon kaj preskaŭ je la 10-a ni revenis al la hotelo.

La 1-a de oktobro estis libera tago, do Liŝa kaj mi decidis iri al la magazeno LOTTE, kiu troviĝas en la strato de 明洞(Myeong-dong), por aĉeti donacaĵojn kaj kosmetikaĵojn. S-ro Nan Youli sekvis nin. Sed ni neniam antaŭe vizitis la ĉiovendejon, do serĉante ĝin ni elspezis multe da tempo. Kaj eĉ la vetero malhelpis nin, pluvegis kaj ventis en tiu tago. Do bedaŭrinde ni malsekiĝis. Pro tio, mi eĉ aĉetis paron da ŝuoj (Mi devas mencii, ke mi ege ŝatas ĝin!). Kvankam la malbona vetero kaŭzis malĝojon unue, poste ni tute forgesis tion dank' al la aĉetado, kiu kontentigis nin.



Antaŭ oficejo de Korea Esperanto-Asocio

En la 2-a ni vizitis la oficejon de Korea Esperanto-Asocio, kiu troviĝas en 麻浦(Mapo). Starante en la ĉambro, oni povas admiri belan pejzaĝon de la rivero Han tra fenestro. S-ino HAN Sug-heui(Kristalo), ĝenerala sekretario de KEA, donis al ni kelkajn ĉarmajn memoraĵojn. Kaj ni kune fotiĝis antaŭ la oficejo de KEA. Poste, s-ro JUN Chan-kyu, amiko de s-ro Nan Youli kaj direktoro de dokumento-fako de KBS(Korea Brodkasta

3) ILEI-Seminario en Orienta Azio

4) Tradicia loko kun malnovaj koreaj aĵoj

Sistemo), invitis nin kune tagmanĝi. La tagmanĝo estis ege luksa. Ĉio estis delikate preparita kaj la koloroj harmoniis unu kun la alia. La plej ekscitiga parto de tiu posttagmezo estis vizito al KBS. S-ro JUN helpis tion por ni. Post la vizitado al KBS, ni veturis al Milita Muzeo per metroo kaj aŭtobuso.

2. Amikiĝi kun esperantistoj en Jeonju(全州)

En la 29-a de septembro ni ekveturis al la urbo Jeonju. Post la atingo ni iom promenadis. Por tagmanĝo, ni lernis fari la korean pladon *bibimbap*. Posttagmeze ni promenadis en 韩屋村 (Hanok-ĉon)⁵⁾ kaj renkontiĝis kun novaj amikoj. Ili estis ege fervoraj! Ĉiuj estis afablaj kaj bonkoraj, ĉiam ridetis kaj ĝentile parolis. Mi renkontiĝis kun Esti(CHOI Eun-suk) kaj Lumi(HO Mi-ae). Ili gvidis Lin Liŝa, Zhang Dali(Fortego) kaj min al kelkaj interesaj vidindaĵoj. Vespere Jeonbuk-filianoj de KEA invitis pekinajn geamikojn kune manĝi en iu loka tradicia restoracio. Ni trinkis makgolon(korea alkoholaĵo el rizo), kiu estis sufiĉe bongusta por mi. Poste ni kaj kantis kaj dancis. Mi kredas, ke ĉiuj ĝuis tiun vesperon.

Ni restis en Jeonju por unu tago kaj revenis al Seulo en la 30-a de septembro. Sed antaŭ la reveno, ni vizitis 百濟文化團地(Baekje-Kulturejo)⁶⁾-n, kaj ĝuis la festivalon.⁷⁾ Krom konstruaĵoj kiujn ni vizitis, la plej klara memoro en mia kapo estas 'kaŝtano', kiu estas produktita plej multe en la urbo Gongju. Bongustajn kaŝtanojn ni manĝis tie, eĉ Jesa kaj Kanguroo ilin aĉetis. Tiu tago estis belega kaj ŝajne nun mi ankoraŭ povas senti la

5) Vilaĝo kun koreaj tradiciaj domoj.

6) Troviĝas en la urbo Buyeo, kiu estis ĉefurbo de la regno Baekje. Lastan julion historiaj postrestaĵoj de la urboj Buyeo, Gongju, Iksan estis registritaj kiel mondaj kulturo-heredaĵoj.

7) Por gratuli la registriĝon al mondaj heredaĵoj okazis granda festivalo en Buyeo.



Ĝujante makgolon kun samideanoj de la urbo Jeonju

agrablan venton tiaman en mia koro.

Vespere ni atingis Seulon kaj vizitis Namsan-turon, kiu staras sur la monteto Namsan centre de la ĉefurbo. Multaj junuloj estis tie kaj oni facile rimarkis, ke ankaŭ multaj ĉinoj estas inter ili.

3. La 47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La Kongreso estis la plej grava parto de nia vojaĝo, kvan-kam ĝi okupis la plej malgrandan pecon da tempo en nia vojaĝarango.



Kun Ghojlo en Korea Kongreso

Por mi estis tro multaj freŝaj spertoj, pri kiuj indas verki, do mi selektas nur la plej profunde memoratajn. La plej gaja afero dum la kongreso estis la lernado de dancoj. Mi multe ĝuis danci 'Hokipoki'-n. Jesa kaj s-ro WOO Byung-in, prez. de Folkloro Danco-Klubo de Esperantistoj, instruis nin kaj mi ŝatis, kiel Jesa dancas. Alia afero estas, ke dum la kongreso mi unuafoje eksciis pri SAT(Sennacieca Asocio Tutmonda), kiu intencas bonigi la mondon per Esperanto.

Antaŭ ol viziti Koreion, delonge mi scivolis, kion fremdlandaj junuloj faras en Esperantujo.

Kiom da junuloj envenas ĉiujare, kio estas la plej grava afero, kaj kiu interesis ilin? En la inaŭguro de la 47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Park Kang, prez. de Korea Esperanto-Junularo, diris, ke nuntempe interesi junulojn pri Esperanto estas malfacile en Koreio, same kiel en Ĉinio. Ekzemple, multaj studentoj ĉeestas en E-kurso en mia universitato ĉiujare, sed ĝis nun nur mi restas. Kiamaniere ni pli bone interesas ilin? Tio estas la plej grava problemo por ni ĉiuj, ĉar Esperantujo bezonas freŝan sangon. Laŭ mia penso, junaj esperantistoj devas alpreni pli da respondeco. Junuloj estas plenaj de ideoj kaj de energio, kaj la juneco ligas ilin. Se ni bezonas samideanojn, ni devas mem krei ilin. Ni organizu interesajn kunvenojn, kiujn junuloj ŝatas. Ni montru al aliaj, ke ni povas fari multajn aferojn kiuj ja estas efektiva kaj valoraj por nia vivo, kaj plibonigu nian Esperanto-kurson, tiel ke junuloj povus ĝin ĝui... ktp. Necesas daŭrigi mian pensadon.

Ni ekiris de la kongresejo al la flughaveno je la 11-a matene en la 4-a de oktobro. Mi dankas al LKK-anoj pro la akompano kaj prizorgo. Mi ankaŭ dankas al Pekina Esperanto-Asocio, kiu donis al mi ŝancon viziti Koreion. Kaj finfine dankon al Liŝa, kiu ĉiam zorgis min dum la vojaĝo. ☞

(de la 15a paĝ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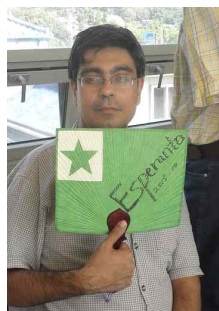
Mi memoras la diron de ĉiĉeronino antaŭ ol viziti la land-limon: "Koreio estas duoninsulo, kiu post Korea milito transformiĝis al insulo." Ŝi daŭris "De infanaĝo mi volis iam vojaĝi de Seulo ĝis Francio kaj Hispanio per transsiberia fervojo. Mi vivas kun la revo" ☞



● 한국 여행 2

En Koreio

Saed ABBASI (Irano)



Mi estas iranano, kiu loĝas 8 jarojn en Ŝanhajo de Ĉinio. Ĉi-foje vizitante Koreion, mi ne rigardis al la lando per la okuloj de fremdulo vizitanta unuafoje. Ekde la unua tago en Koreio ĉiam mi komparis la du landojn, Koreio kaj Ĉinio. Ĉi tie mi ne enfokusigos esperantajn aferojn, pri kiuj certe aliaj karaj partoprenantoj skribos pli detale kaj pli bone pri la 47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Tamen mi devas almenaŭ mencii tion, ke mi dankas ĉiujn koreajn gastigantojn kaj ankaŭ la ĉinan karavanon akcepti kaj akompani min dum la vojaĝo en Koreio.

Orientaziaj landoj havas saman civilizacian strukturon. Inter Koreio kaj Ĉinio troviĝas klaraj kaj multaj similaĵoj, kvankam ili havas malsamajn metodojn kaj normojn. Estas interese, ke oni fokuse rigardas al diferencoj inter la du landoj. Por mi la plej interesaj estas malsamaj vidpunktoj kaj normoj. Kaj ĉi tie mi skribos kelkajn pri tio.

En la unua tago de mia vojaĝo, kiam aviadilo flugas sur la ĉielo de Koreio, mi elpoŝigis poŝtelefonon kaj tra la dekstra fenestro de mia sidejo fotis la landan pejzaĝon. Je tio la servistino de la korea aviadila kompanio 'Asiana' avertis min ne fari tion, sed ankaŭ ridetante kapjesis. Kvankam en korea aviadilo ŝalti telefonon dum flugado ne estas akceptate, tamen tio ne estas almenaŭ malpermesata kulpo tiel kiel en ĉinaj aviadiloj.

En la kontrolejo de Incheon-flughaveno juna virina policano demandis min angle: “Ĉu vi havas ĝustan hotel-adreson en Seulo?” Mi neis. Ŝi grumblis turnante la vizaĝon al sia koleginino sidanta en apuda budo iom angle iom koree: “Ĉi tiuj fremduloj neniam faras formalizaĵojn ĝuste!” Poste ŝi dense enspiris kaj redonis la stampitan pasporton al mi. Pli homeca kaj malpli burokrata sento regas al formalizaĵoj en Koreio kompare kun tiuj en Ĉinio kaj Irano.

Propraokule mi vidis tian tolereman kaj simplan konduton ne nur en la kontrolejo, sed ankaŭ en hotelo, kiu ne postulas turistojn atendi por kopii kaj skani pasporton dum longa tempo kaj plenigi formojn, kiuj estas necesaj en Ĉinio kaj Irano ambaŭ landoj.

La simpleco de monŝanĝo en Koreio ankaŭ mirigis min. Anstataŭ kelkfoje kalkuli kaj rekalkuli papermonojn, oni nur postulas plenigi formojn, kaj kontrolas kaj kopias la identigilon aŭ pasporton. Oni nur prenas nian fremdan monon kaj ŝanĝas ĝin per korea mono.

Alia okulfrapa problemo okazis ĉe elirejo de la flughaveno. Mia ĉina HuaWei-poŝtelefono ne funkciis en Koreio. Neniu el ĉinaj pasaĝeroj, uzis ĉinan simkarton dum la vojaĝo en Koreio por ŝpari monon. Kelkaj el ili preferis aĉeti la plimultekostan korean simkarton en la flughaveno, kion tamen mi ne volis, ĉar mi jam aktivigis mian telefonon, sed ĝi ne funkciis. En flughaveno mi vidis, ke tiom multaj ĉinoj, kiuj vojaĝis al Seulo dum la mezaŭtuna festo, ne uzas HuaWei-poŝtelefonon. Regis Apple en la poŝtoj de ĉinoj. Multaj koreoj preferas Samsung-n kiel nacian kaj bonkvalitan poŝtelefonon. Dum la tagoj sur la startoj de Seulo, kiam mi klopodis trovi min mem kaj miajn destinojn sur *Goole Map*, iom post iom mi tute komprenis, kial ĉinoj ne aktivigis la servon(international roaming) kaj reton sur sia propra simkarto. *Google* kaj *Google Map* ne estas

permesataj sur la ĉinaj poŝtelefonoj kaj simkarto, kaj por ĉina telekomunikada buroo ne gravas, ke uzantoj estas en Ĉinio aŭ en Koreio. La metamorfozo ŝanĝis mian mobilon al kamerao en Koreio.

De la centra stacidomo en Seulo marŝante mi povis iri ĝis Myeongdong. Sur la strato de Myongdong multaj vendejoj estis fermitaj pro nacia festo. Tial por plibone rigardi Seulon mi promenis ŝtuparon al la monteto Namsan sidanta centre de Seulo, kaj al la Namsan-turo staranta supre de la monteto. Do ĉinoj kaj fremduloj kiel mi, kiuj vivas en Ĉinio, povus tute senti sin esti hejme pro la perfekta simileco inter Namsan-turo kaj Ŝanhajo-turo nomata Orienta-Perlo. Sur la fenestroj de la turo oni montras, kiom proksimaj kaj malproksimaj de la turo estas la famaj urboj en la tuta mondo. Ekz. Ŝanhajo estas for je 700.83km kaj Pyongyang(ĉefurbo de Norda Koreio) for nur je 246.9 km.

La karaktero de moderna Koreio estas ligita kun Korea milito(1950.6.25) antaŭ sesdek kvin jaroj. Korea milito konsideriĝas kiel historia okazo de pasinta tempo por multaj homoj. Sed en Suda Koreio tiu milito kaj ĝiaj sekvaĵoj ne montriĝas tiaj. Ekskursoj al Milita Muzeo kaj DMZ (Senarmiligita Zono) je la landlimo inter Norda kaj Suda Koreioj memorigis fremdulojn pri tio, ke milito ankoraŭ ne estas finita.

La 1-a de okt. mi kun du ĉinoj veturis al DMZ. Bedaŭrinde pluvis. Silento en la vualo de nebulo kovris la terenon kaj la riveron Imjin-gang apud la zono. Mi enrigardis etan truon sur la ŝtala muro je la fino de la tunelo 3, kiun konstruis Norda Koreio por invadi la Sudan. Poste per kamerao mi rigardis tra la truo la alian flankon de la muro. En venontaj tagoj mi vidis mapon de la tuta Koreio, en kiu aperas ambaŭ du landoj, Suda kaj Norda Koreioj, kiel unu lando. (*al la 14a paĝo*)

중국 여행단 안내를 마치고

제47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참가를 위해 중국 북경에스페란토협회 Nan Youli 회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에스페란티스트들이 6박 7일(9.28.~10.4)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 여행단을 맡아 이끌어줄 총괄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정현주 이사를 통해 전해 듣고 지방학생 수학여행을 짜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10월 1일(목)을 제외하고 전 일정을 수행했다.

2017년 서울 UK를 위해서는 중국인의 참가가 중요한 만큼 성의를 다했고, 10월 2일 협회 방문 때는 협회기관지를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협회 회원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여 5명을 협회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평생회원: Nan Youli(南由礼), 일반회원: Zheng Bocheng(郑伯承), Zhang Dali(张大力), Zhang Yongle(张永乐), Lin Lisha(林莉莎).

중국의 국가 지원을 받는 다른 단체와 달리 개인 비용을 들여 온 단체여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의미 있는 한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전북지부 이미경 총무의 맞춤 협조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과욕을 부려 관광버스를 이용한 2박 3일간의 경주 방문까지 일정에 넣으니 1인당 여행경비가 70만원이나 되었다. 그러나 경비를 50만원에 맞추어 달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1박 2일간의 전주, 부여 여행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상당히 적은 비용이지만 한국 에스페란티스트들 덕분에 다양한 체험을 하며 흡족한 여행을 했고, 한국대회 참가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며, 내년 48차 한국대회나 2017 서울 UK에도 참석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으니, 한국과 한국에스페란토운동에 관심이 많은 중국 에스페란토 단체 회원들을 안내한 보람이 컸다.

이번 중국 에스페란티스트 맞이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다. 이영구 협회장은 여행일정의 중국어 번역, 공항에서 숙소(코업 레지던스)까지의 전세버스 연



KBS 별관 앞에서 (10월 2일)

결과 저녁식사 초대(10월 2일)를 해주셨고, 정현주 이사는 중국 측의 의사전달과 연락 담당, 첫날 공항 영접, 경복궁, 저녁식사, 북촌마을 관광에 함께 하였으며, 강헌구 부회장은 인사동찻집에서 관광의 첫날 마무리에 이어 1박 2일 전주, 부여 여행에도 동행하며 분위기를 띄워 주셨다. 9월 29일 전주에서는 이미경 전북지부 총무의 기획 하에 비빔밥 만들기와 부채 공예 등 재미있는 문화체험이 가능했고, 전북지부의 이선희 회장님, 최은숙, 허미애, 광주의 최만원님이 한옥마을 관광을 도왔다. 또한 김미숙님이 안내한 막걸리집 '달빛소리'에서 전북지부의 초대로 이선희 회장님을 비롯하여 지부회원들이 한국적인 문화행사의 장을 주도하였으며, 나영성 님도 합류하는 등 에스페란토를 통한 한·중 교류의 장에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월 30일 부여여행은 최은숙, 허미애 님이 전주에서 자동차로 달려와 하루관광을 도왔다. 10월 2일 협회방문에서는 한숙희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이하며 대회기념품을 미리 나누어 주었으며, 이어 문현주 회원이 협회에서 KBS 별관까지 중국어 통역을 하며 안내하였으며, 10월 4일에도 대회장에서 청량리까지 안내하며 공항버스 6002번을 타도록 도왔다. 모든 일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이현숙 / KEA 부회장>

내 이름은 Harmoniko - Mia nomo estas Harmoniko -

국남주 (Harmoniko)

영산선학대학교 원불교학과 4학년



내 이름 'Harmoniko'는 '하모니카'를 뜻한다. 마영태 교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평소에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하모니카를 말했고, 이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Harmoniko의 Harmoni의 사전적 정의는 '조화', '일치', '화합', '융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 피아노, 기타, 색소폰, 사람의 목소리와도 잘 어우러지는 하모니카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단어다. 난 하모니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던 것 같다. 아니 그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나만의 목표를 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원불교 성직자(교무) 과정에 있다.

나와 에스페란토의 첫 만남은 2011년 원광대학교 재학 당시이다. 학교 교양 수업과정에 '에스페란토 첫걸음'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이것이 뭘까?"라는 의문과 함께 "수강신청 한 번 해 볼까?"라는 마음이 났으나, "의대생이 많이 들어서 점수 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라는 교수님의 공지에 바로 관심을 접었다.

두 번째 만남은 2014년 원불교 성직자 양성기관인 '영산 선학대학교'에 재학 중 원불교 교도님을 통해서였다. 교도님께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로 찾아오셔서 정성껏 강의를 해주셨지만 딱딱한 학교 일정과 특별한 목표의식이 없었던 탓에 호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강의로 인하여 에스페란토라는 것

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에스페란토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배우기 쉬운 언어', '유럽 공용어의 대안', '어느 나라나 민족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세 번째 만남은 2015년 원신영 교무님이(Miŝa) 우리 학교에 오셨을 때다. 교무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교무님이 에스페란티스토인 것을 알았고, 이 만남으로 인하여 정식으로 에스페란토에 입문하게 되었다. 입문하자마자 바로 교무님과 대전 유성유스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여름강좌에 참가했다.

에스페란토 회원들과의 첫 만남은 뭐랄까? 친근함? 화목함이 느껴졌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처럼 반가웠다. "과연 영어를 배우는 목적으로 만나는 모임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무엇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7년에 열릴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 관한 회의였다. "어떻게 하면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을 잘 맞이하여 에스페란토 정신을 고취시킬 것인가?" 여러 논의가 오가는 상황을 보며, 그저 큰 돈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대부분의 현대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국한을 한국에만 한정짓지 않고 세계 사업을 실현하고 있는 세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지금은 미약한 실력이지만 에스페란토를 열심히 공부하여 좀 더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활동들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꿈꿔 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넘어서 에스페란토와 함께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

● 일본에스페란토대회 참가기

Partopreninte en la 102a Japana Esperanto-Kongreso

PARK Yongsung (Nema)
vicprez. de KEA

Sendai estas la urbo de la 102a Japana Kongreso (2015.10.10~12). Ankoraŭ havante en mia memoro kelkajn bildojn pri ĝiaj stratoj kaj ĝia flughaveno, kiujn englute detruis la granda tsunami en 2011, mi direktis min al la kongreso, kies temo estas 'Espero trans la katastrofo'. Laŭ la oficiala raporto, al la Sendai-kongreso aliĝis 405 personoj kaj reale partoprenis 258 el 10 landoj. Mi estis unu el oficiale invititaj alilandanoj, kiuj reprezentas sian landan movadon kaj havas devon oficiale saluti kaj kunsidi en kelkaj gravaj programeroj, ekzemple, Azia agado kaj Azia Junularo.

Unuan vesperon en mia ĉambro mi foliumis la libron, kiun mi ricevis kiel kongresan donacon, kies titolo estas 'Esperantistaj voĉoj el la katastrofo 2011'. El la libro trovante, ke LKK-anoj, kiuj hodiaŭ min bonvenigis kun amika rideto, estas tiuj, kiuj mem trapasis la katastrofon kaj eĉ perdis siajn korajn parencojn kaj amikojn, mi ne povis trankvile dormi kaj devis ŝanĝi salutmesaĝon antaŭe preparitan de mi.

Kiel reprezentanto de KEA, mi transdonis dankvortojn al

japanaj amikoj pro ilia helpemo, kaj vorton de kunbatalanta amiko por nova estonteco, kiun ni aziaj esperantistoj malfermos. Krom tio, mi devis esprimi mian kortuŝon sur la temo elektita de ili por ĉi-foja kongreso. Sendai en la gubernio Miyagi estis loko de katastrofo, loko de doloro kaj malesperiĝo. Nun esperantoj kolektiĝas ĉi tie kaj volas reflorigi la floron de espero. Tute male ol en kutimaj kongresoj, la sendaij kongresanoj ekskursis al la ruino detruita de tsunami. Mi povas kuraĝe diri, ke japanaj esperantistoj estas vere sinceraj, kiuj profunde komprenas, kiel dolora kaj abisma estas malespero kaj sekve kiel valora kaj dezirinda estas eĉ la plej eta lumo de espero.



Esperantistaj voĉoj el la katastrofo 2011

Dum 3 tagoj por kongresanoj estis pretaj pli ol 50 programeroj en diversaj koloroj. Al mi la plej grava punkto de tio estis, ke ĉiu programero estis okazanta en ĝusta loko en ĝusta horo, kion pleje akcentis s-ino Mirejo, prezidanto de ILEI, en sia gratulmesaĝo por nia Korea Kongreso, kiu pretigas sin por UK 2017. Tiom multe da programeroj okazadis tiel orde kaj senbrue, ke al mi ŝajnis kvazaŭ nenio okazas ĉi tie. Ĝian sekreton mi serĉadis kaj trovis el tre simpla

angulo. Unu sinjoro tenis sin staranta ĉiam en unu loko, nome, deponejo, kie oni povas deponi sian valizon. Lian vizaĝon mi trovis el fotaro de LKK-anoj. Antaŭ tagmezo, kelkaj estis jam starantaj antaŭ amaso da lunĉo kaj disdonis kun la listo, laŭ ilia kontrolo mi jam povas scii, en kiu ĉambro mi povas trovi lokon tagmanĝi kaj kien mi povas reveni kun malplena manĝokesto. Ĉio fluas kun neniom da konfuzo. La ŝlosilo estis sincera kaj lojala sinteno de LKK-anoj kaj kunlaborantoj, kiuj sin rigardas nek kiel gaston, nek kiel ĝuanton, sed nur kiel mastron, kiu havas nur celon servi la gastojn bone ĝui la kongreson. Tio klarigis al mi la sekreton de sukceso de ilia kongreso.



Kiel kongresano mi ĉeestis kelkajn programerojn. En kunsido de Azia Agado mi raportis nian landan agadon. En kunsido de Azia Junularo mi povis trovi la sincerecon kaj laboremon de junuloj aziaj. Ĉe la peto de amikoj mi partoprenis ankaŭ en 'Parolu esperante!', en kiu mi kiel alilandano helpis komencantojn elparoli, kaj en 'Bildteatro' mi spektis kelkajn bildteatraĵojn, kiujn preparis diversaj lokaj kluboj. Mi havis bedaŭron, ke mi ne povis esti en aliaj programeroj, kiuj interesas min, ekzemple: 'La Artikolo 9a', 'Tertremo en Nepalo', 'Eroŝenko' kaj 'E-Sumoo', jam ne parolante pri

kelkaj kantadoj. Antaŭ la tre bone kaj riĉe preparita tablo ĝui ĉion estas ne eble.

Unu programero estis speciala por mi, ĉar ĝi povas montri al ni, kia estos nia estonteco. Tio estis preparita de japanaj junuloj kun la titolo 'Nia 70a komento', en kiu ili serioze alproksimiĝas al la situacio kaj sinteno de nuna Japanio en la 70a datreveno post la dua mondmilito. Ĉar ĉiu nacio havas sian propran historian vidpunkton, kiel esperantistoj ili proponis la neceson de 'la dua vidpunkto', kiel Esperanto servas al ni kiel 'dua lingvo'. Dum en la faka kunsido 'La Artikolo 9a' sinceraj pacamaj gesinjoroj diskutis por sia paca konstitucio, la juna generacio de Japanio ankaŭ strebas por trovi solvon de paca mondo. Kiel sinceraj estas popolanoj al paca rilato kun najbaraj landoj!



Revenante de la kongreso preparita de japanaj amikoj, precipe en la urbo Sendai, mi trovas en mia koro kelkajn vortojn. Pli brilanta espero el katastrofa malesperiĝo. Sukceso el lojalaj kunlaborantoj. En la miksiĝo de rememoroj de Sendai kongreso kaj deziro al UK 2017, al mi pli klara fariĝas la vorto de Zamenhof: Ĉar por esti sukcesa, nia laborado devas esti dividita inter eble plej multe da manoj. Jes, estu ni pretaj kiel mastro de UK 2017! ☸

국내소식

2015년 10월 KEA 이사회 회의록

일시: 10월 1일

장소: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110호실

참석: 이영구 회장, 강헌구 오순모 부회장, 유영애, 최정욱 이사, 한숙희 사무국장.

[보고 사항]

1. 2015년 9월 재정 보고.

2015년 9월 재정보고			
수입		지출	
임원회비	490,000	운영전도금	2,000,000
회원회비	330,000	건물관리비	292,660
후원회비	5,760,000	전화통신비	50,990
도서판매수입	25,000	제세공과금	265,560
이자수입	143,930	지급수수료	290,200
행사수입		우편료	663,710
UEA대행수입		편집비	400,000
잡수입		소모품비	58,900
기관지발행비전입		교통출장비	60,000
		비품구입비	
가수입 전입		잡비	150,000
		잡손실	
		예치금	
		도서구입비	
		기관지발행	1,320,000
		행사지원비	931,000
당월수입(1)	6,748,930	당월지출(3)	6,483,020
전월이월금(2)	6,622,310	차월 이월금(1+2-3)	6,888,220
9월 수입계(1+2)	13,371,240	9월 지출계	13,371,240
수입월누계	37,410,573	지출 월 누계	34,144,913
행사관련	1,133,500	행사관련	686,000
UEA송금관련		UEA송금관련	
기타가수금	1,950,000	기타가지출금	2,450,000
당월 가수입(1)	3,083,500	당월가지출(3)	3,136,000
전월이월금(2)	992,327	차월 이월금(1+2-3)	939,827
9월 가수입계	4,075,827	9월 가지출계	4,075,827
가수입월누계	22,880,765	가지출 월 누계	24,741,256

- 제47차 한국대회 참가할 외국인에게 초청장 발송.
- 9월 10일,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연례총회에서 한국에스페란토협회가 주최자분과 최우수회원사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강헌구 부회장, 한숙희 사무국장 참가.
- 9월 14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도메인 사용료 5

년 분 128,700원(2020년 9월까지)을 납부함.

- 9월 16일, 전경덕 지도위원이 에스페란토 입문 50주년 기념타올 200매 증정.
- 9월 24일, 국세청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개 서류 발송.

[의결사항]

- 장충식 명예회장 회고록 집필 관련 협조를 요망하기로 하다.
- LKK 임원 구성 (18~20개 영역): 총괄회장은 이영구 회장이 당연직이므로 구성초안을 작성토록 위임하다.
- UK 앰블럼을 평화, 분단, 통일, 한국 등을 키워드로 해서 공개모집하기로 하다.

KEA 임시 이사회 회의록

일시: 10월 17일 오후 7시

장소: 협회사무실

참석: 이영구 회장, 강헌구 박용승 오순모 부회장, 황지연 최정욱 최유식 김철민 박찬복 이사, 박 강 청년회장.

위임: 김주 김옥정 이남행 이회준 유영애 이사.

[보고사항]

1. 제47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재정 결산 (단위: 원)

입금		출금	
입금내역	입금액	출금내역	출금액
참가비	1,370,000	대회장	340,000
후원금	6,185,000	숙 박	1,252,000
숙 박	1,285,000	식 비	780,000
식 비	538,000	간 식	674,880
경 매	260,000	대회책자	440,000
주 차	44,000	현수막	170,000
수입계	9,682,000	청년회 후원	233,628
수지차	5,515,492	기타	276,000
		지출계	4,166,508

- 박강 청년회장: 47차 한국대회 기간동안 청년 후원금 사용내역과 KS (동아시아 청년 세미나) 준비상황 보고.

숙 박	109,628원
야 식	94,000원
조 식	30,000원
합 계	233,628원

[의결사항]

1. 이흥진: 문화담당 부회장으로 선임.
2. 이중기: 국제담당 이사로 선임.
3. 유필근: 사무국장으로 선임.
4. 사무국장에게 지불할 운영전도금은 3개월 동안 (12월까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차후는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SEK)

- 10월 7일(수), 일본의 HUGIMOTO Hideko와 헝가리의 Eniko Zengo Sereghy 씨와 함께 문화원 중급반 수업이 있었다. HUGIMOTO(Sunjo) 여사는 그동안 중급반 수강생들과 함께 스카이프를 대화하며 나누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다.
- 무료강습: 2017년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서 서울 유치 성공을 기념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에스페란티스토 400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에스페란토 무료강습(단, 교재비 2만원 별도)을 실시하기로 했다. (13명 선착순)
 개강: 11월 7일 15:00~14:00 (월 4회, 매주 토)
 강사: 이중기 SEK 원장 (010-3340-5936)
 (UEA 임원, 경희대 에스페란토 강사)

<이중기 / 에스페란토문화원장>

에스페란토 단기강좌

제47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10.3~4)와 제11차 국제선방(10.8~11)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MÁRKUS Gábor(헝가리) 박사의 무료 에스페란토 단기강좌(10.12~ 26)가 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됐다. ⇨

시간: 19:30~21:00

초급: 월요일, 목요일 (12일, 15일, 22일, 26일)

중급: 화요일, 금요일 (13일, 16일, 20일, 23일)

UK반: 수요일, 토요일 (14일, 17일, 21일, 24일)

에스페라 몬토

10월 18일, 단풍이 들기 시작한 도봉산에서 즐거운 산행을 가졌다. 다음 주에는 산 전체가 고운 단풍으로 절경을 이룰 듯하다. 11월 22일에는 부여의 부소산에서 고란사, 낙화암을 따라 백제문화유적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한덕섭 / 에스페라몬토 회장>**

카톡 매일읽기(10월)와 세계읽기대회(11월)

에스페란토 책을 매일 읽으며, 일부를 녹음하여 다른 회원에게 들려주는 '읽어주고받기(Lege Doni kaj Ricevi)' 그룹에 31명의 독자가 참여하여, 총 26종류의 책이 읽혀졌다. Fundamenta Krestomatio는 10명의 손에 들려져 10월에도 애독서 1위이며, Fabeloj de la fratoj Grimm(카베역, 서울문화원 출판)은 5명에 의해 읽혀지고, 그 외 2명이상으로부터 선택된 도서는 Andersen(자멘호프 역), Aventuroj de pioniro(에드몽 프리바), La fundamenta instruo de Ŭnbulismo(원불교 경전), 직접교육으로 배우는 에스페란토 등이다.

올해의 마지막 세계읽기대회(E-Sumoo)가 11월 15~29일까지 개최된다. 지난 9월 대회에는 26개국에서 238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은 34명(3위) 참가로 100차 세계대회 개최국인 프랑스(35명)와 세계읽기대회를 시작한 일본(49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매일읽기습관을 가지며 UK 2017의 유치국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분은 김인혜(Ella) 씨에게 문의함으로 11월 세계읽기대회에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박용승 / KEA 부회장(교육)>



상: MÁRKUS 박사의 초급강좌 하: 중급강좌

Projekto Mia, Pomo(5차)

9월 29일 오후 6~9시, 부산 민주공원 기획전시실 '허성 서양화 특별전'에서 박소산, 광민서 칸타타 회원의 학춤, 민요, 가야금 연주로 이어지는 축하공연이 있었다.

'Pomo'는 자신의 생각을 에스페란토로 발표해 보자는 의미에서 2014년부터 시작했다. 론도 'Esperanto Kantata'와는 별개로 진행되었으나, 규모가 축소되고 참가자 대부분이 칸타타 회원이기에 칸타타 정기 행사로 편성하고, 명사를 초청해 유료 강좌로 실시하기로 했다. 좋은 강연을 통해 칸타타 회원과 부산 에스페란티스토들에게도 의미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보도자료

원불교신문 (10월 16일자): 제11차 국제 선방에 참가한 Margreet Peschie(네덜란드) 여사와 인터뷰를 갖고, '에스페란토, 국제교화의 열린 기회'란 제목으로 에스페란토와 국제 선방을 소개했다. <민소연 기자>

신입회원

- Nan Youli(南由礼, 중국, 평생): 이현숙 추천
- Lin Lisha(林莉莎, 중국, 일반): 이현숙 추천
- Zhang Dali(张大力, 중국, 일반): 이현숙 추천
- Zheng Bocheng(郑伯承, 중국, 일반): 이현숙 추천
- Zhang Yongle(张永乐, 중국, 일반): 이현숙 추천
- Yamasita Tosihir(일본, 2017년 일반): .
- 이주현(일반): .

회원동정

- 허 성: 서양화 특별전
9월 23일~10월 2일, 부산 민주공원
- 공길윤: 장인상, 10월 9일
- 원신영: 결혼 (배우자 박선영)
10월 24일 12:00, 원광대 송산기념관 3층
- 곽중훈: 장녀 곽보라 양 결혼
11월 1일 12:00, 대구향교 혼례식장

2015 남강에스페란토학교 가을학기
 날짜: 11월 28~29일 / 장소: 남강서원
 ※ 기관지 뒷면 광고 참조

Korea Esperanto-movado en oktobro, 2015

- ♦ La 47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okazis en Hanguk Universitato de Fremdaj Studoj en Seulo de la 3a ĝis la 4a de okt. kun la temo "Kiel ni preparu la vojon al la 102a Universala Kongreso de Esperanto?" Partoprenis 141 esperantistoj el 6 landoj(koreoj 120).
- ♦ KEA ricevis premion de SMA⁸⁾ kiel plej bona membro de SMA en la 10a de septembro.
- ♦ En KEA okazis senpaga mallonga E-kurso, kiun gvidis d-ro MÁRKUS Gábor(hungaro) de la 12a ĝis la 26a de okt. post la 47a Korea Kongreso kaj la 11a Internacia E-Renkontiĝo de Meditado.
- ♦ De novembro senpaga E-kurso okazos ĉiumonate en Seula Esperanto-Kulturcentro por 400 novaj esperantistoj ĝis la 102a UK en Seulo, 2017.

● Eksterlande

국외 소식

11월

- 6~8: 18a Gliwice'a Rendevuo por kaj de Uzantoj kaj Praktikantoj de Esperanto
곳: PEA, Filio en Gliwice.
- 14~15: 27a Eŭropa Esperanto-Rendevuo
곳: Stella-Plage(프랑스)
- 18~22: 6a Kongreso de Kuba Esperanto-Asocio
곳: Havano(쿠바)
- 21~22: Esperanto-konkurso radioamatora
주최: Internacia Ligo de Radioamatoroj

Internacia E-Seminario de Hangzhou E-Asocio

일시: 11월 12일(목)~15일(일) (중국)
주제: 'Uzado kaj Evoluo de Esperanto'

8) Seoul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Alliance